

地球의
超異變



Pole Shift!?

— 全面 核戰爭보다도 더 처참한 破局이? —

존·화이트 著
張世元 譯

(지난호에서 계속)

인간이 비밀로 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원인

그러나 원인은 그것만은 아니다. 혹성정렬(惑星整列)에 의한 지자기(地磁氣)의 이상을 정점으로 전쟁과 환경파괴도 시프트의 유인(誘因)이 된다. 그 어떠한 자는 말론을 통해 말했다. 폴·솔로몬에 있어서의 「근원자」(根源者)도 그렇게 말했듯이 그 어떠한 자는 「콘셉트·움·폼즈(Conept of thought forms)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을 번역한다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알맹이—숨겨진 본심)이라고나 할까. 이것을 그 어떠한 자는 매우 중요시 한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대이변의 진정한 주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이 “너희들”인간이 숨기고 있는 본심”과 혹성변동에 의한 지자기의 이변」이 서로 얽혀 이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이더라고.

실로 비과학적인 말이기도 하나 이 말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들 현대인은 모두(라고 하니 어제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가 표면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으나 본심은 이기와 욕망으로 가득차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감, 증오에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물론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저차원의 인간의 한 사람이다.

그것이야 말로 포울·시프트의 최대의 원인이다. 그러한 인간의 본심은 이때까지 지구를 괴롭혀 대자연이 인간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고 어떠한 자는 말론을 통해 이렇게 규정짓고 있었다.

「그러니 포울·시프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혹성간의 자력이 있어야만 하나 그것만으로는 시프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시프트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인간들이 자신의 콘셉트·움·폼즈를—본심을 바꿈으로써 피할 수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알 수 없을 것이나 자연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는 그만큼 강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도 별이나 대기와 같이 우주의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본심의 파동은 지자기(地磁氣)와 같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전자파적인 파도의 일종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이상해 진다는 것은 지자기를 미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현재 지자기가 쇠퇴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본심도 원래 있어야 할 모양을 잃고 저속한 수준으로 쇠퇴해졌다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힘에 의해 유지되어 정상적으로 돌고 있었던 지구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포울·시프트를 일으키는 원인은 많이 있으나 흑성직렬과 지자기의 혼란은 오히려 조역(助役)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로 포울·시프트를 일으키는 주역은 너희들 인간의 마음인 것이다」

그것을 개선할 기한은 이미...

지금까지 4000회 가까운 알론의 리이딩의 가장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그로 하여금 지껄이게 한 어떠한 자는 시프트에 의해 어느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도 이 콘셉트·옴·소트·폼즈-당신 자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본심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자는 알론을 통하여 이미 77년말 어떠한 결정적인 사실을 우리들 인류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시프트의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동시에 시프트에 앞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전쟁과 환경파괴의 피해도 꼭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리이딩 3081호라고 하는 이 예언은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한이 있다. 너희들 인간이 그 기한까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과는 다른 별도의 가치관과 생활방법을 갖게 되면 어떠한 대이변도 파멸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는 현재의 운동을 그대로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 기한이라 함은 1982년의 중반까지이다」

오오! 우리들은—이 지정기한까지 마음을 개선했었는지. 적어도 이 정도라면 파멸의 대이변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지구가 안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본심을 개선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한을 넘겼어도 악의 콘셉트·옴·소트·폼즈는 더욱 더 격렬하게 이 모처럼의 지시를 이제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했는지.

「1998년까지 대파국(大破局)은 온다」 에드가·케이시의 기괴한 꿈과 예언

아마도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옛날이 아닌 시대—1937년의 10월 7일, 미국 오키오주의 디턴이라는 동네의 어느집 조용한 안방에 여성 한명과 두사람의 남성이 모였다.

남성 가운데 한 사람인 숙련된 속기자(速記者)같은 청년이 두터운 노트와 연필을 앞에 두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일을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한사람의 남성은 이미 60을 약간 넘은 어찌보면 구멍가게의 할아버지 같은 인상의 사람이었다. 그는 방의 어두운 구석의 소파에 눕자 곧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몇번 반복하더니 잠이 든듯하면서 밝은 정신을 잃은듯한 상태에 빠졌다.

이어 이를 애정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백발의 조용한 성격의 여성은 잠든 남성의 귀전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을 했다.

「자, 당신은 이제부터 이 장소에서 당신에 부과된 리이딩을 하는 것이예요. 이때까지도 그러했듯이 오늘의 리이딩은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듯 했어요. 이미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정권이 그 위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뭣소리니는 이디오피아를 정복했구요. 아세아에서는 일본 군벌의 행동이 주목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나가 알고 싶어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그것을 당신은 대답해 줄 수 있을런지요. 알고 있는 때까지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잠자고 있던 남자는 이를 듣고 몸을 약간 경련시켰다. 그 경련은 「잘 알아 들었다」는 사인과 같았다. 백발의 여성은 남자의 이마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즈막한 목소리로 답을 재촉했다... 남자는 눈을 감은채 땅속에서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로 어떠한 자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듯 답을 하기 시작했다...

낙오된 소년에 돌연 주어진 초능력(超能力)

이 남자가 에드가·케이시였다. 그는 1877년 켄터키에서 매우 엄한 기독교 신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소년시절 그는 성적이 좋지 않는데다 신체도 약하고 친구들과도 부딪는 언젠나 바보로 취급되어 매일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심했던 13세 때 어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직전 그는 학교에서 낙제하여 집에서 부모들까지도 거의 돌보지 않게 되자 가출하느냐 자살하느냐 하고 매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할 그의 앞에 어느날 밤, 괴상한 「환영」(幻影)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환영의 정체를 그는 그후에도 밝히지 않았다. 얼마후 탁연하게나마 친구에 이야기한바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천사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것은 자살 직전에 있던 그에게 「힘을 내도록 해주마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일체 뒤돌아 보지 말고 장래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만약 될 수만 있다면 지금 나를 바보 취급 하고 있는 놈들을 파랗게 질리도록할 수 있는 멋진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소년 케이시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환상」(幻像)은 웃으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그힘을 싸움질이나 하는데 쓰는 힘을 갖게한다는 뜻은 아니다. 너는 보통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대답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잠이 들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했다.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케이시는 그 「환상」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환상」과 말한 수개월 후, 그는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 자기가 잠자고 있을 때, 무엇인가 질문을 하도록 여자 친구 바에게 부탁을 했다.

이 여자친구는 그후 그의 현신적인 처가 된 가트루드였다. 그녀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던 어두운 여자로서 다른 남자친구는 없었던만큼 케이시에게는 남다른 호의와 동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곧 그의 부탁을 받아 들이고 학교를 쉬어가면서 가까운 오두막집에서 잠들고 있는 케이시에게 아픈사람의 병환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았다.

「... 저 플라너간 아저씨가 몸이 불편해 누워있기만 하는데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케이시는 알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케이시는 깜빡깜빡 졸면서 이말을 듣고 나더니 전신을 경련시켰다. 그리고 중학의 교과서도 잘 읽지 못했던 열등생이었던 그가 어려운 의학용어까지 섞어가면서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플라너간 노인은 비장(脾臟:가장 진단이 어려운 내장의 하나)이 병들어 있다. 보통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으나 시카고대학의 빈즈박사의 면역요법이라면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더욱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자 부득이 그 시카고대학에 연락을 해 보았다. 틀림없이 빈즈박사라는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동시 당시의 의학계에서 면역요법으로서 제 1인자임을 알았다.

노인은 귀신에 홀린듯한 심정으로 시카고의 빈즈박사를 찾았다. 박사는 잠든 케이시가. 말한 것과 똑 같은 진단을 내리고 면역요법으로 그 노인을 완치시켰다.

전세(前世)에서의 사랑의 라이벌이 자매(姉妹)로서 태어났다.

케이시는 이것으로 자신을 얻고, 이른바 심령치료사(心靈治療師)가 되기로 결심했다. 카드프드의 도움으로 명상→무의식→리딩의 훈련을 거듭한 끝에 독립한 것이 24세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주로 리딩으로 병자를 고쳤으나 그러는 가운데 병에 관해 상담하러온 사람의 전세(前世)까지 투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먼저의 알론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알론이나 케이시는 어떠한 똑같은 하나의 근원(根源)에서 심층의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흥미로운 점이다. 인간에게 정말로 전세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 그 투시를 통하여 케이시의 능력이 다시 비약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케이시의 능력은 널리 알려지고 소문을 들은 많은 신자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유명한 예로서는 서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자매에 대한 리딩이 있었다. 케이시는 그 젊은 자매들 앞에서 잠이 들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당신들은 90년전 한사람의 남자를 두고 서로 사랑을 했던 케이·커크와 엘렌·발렌이 살고 있었던 영국의 피어슬로에서 가까운 클림이라는 동리에 있었다」

그들 자매는 곧 탐정사에 부탁하여 조사해 보았더니 틀림없이 90년전 그 동리에 그러한 여성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원수끼리 서로 칼질을 하다가 상처를 내게했던 범행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전세의 나쁜 인연을 현세에서는 버리도록 하기 위해 신이 당신네들을 자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케이시로 부터 계시를 받고 자매는 곧 화해는 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불가사의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여성이 되었다.



에드거·케이시 심층의 대예언자는 거의 모든 예언을 적중시켰다.

케이스가 투시(透視)한 「인류와 지구의 과거생(過去生)」

이러한 시기를 거친후 케이스에게는 다시 기괴한 능력이 생겼다. 개인의 과거일 뿐 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과거생」까지 잠들면서 지껄이게 되었다.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책을 한줄도 읽어보지 못한 그가 어려운 술어까지 섞어가면서 유창하게 말하게 된 것이다.

그가 35세의 때이다. 그때 이미 그의 현신적인 처인 동시에 보조자가 되어 있었던 가트루드가 「인류의 과거는?」하고 질문을 하면 케이스는 신음하듯 이렇게 대답했다.

「그때 — 5만년 이상 그전 — 지금의 사하라사막과 나일강의 상류에 인류가 살고 있었다. 그곳은 사막이 아니라 녹색이 짙은 옥토였다. 대서양에 거대한 섬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문명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외에도 지금의 유럽이나 아세아의 이곳 저곳에서는 또한 높은 문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북극은 당시 남쪽에 있었으며 시베리아는 열대에 가까웠다. 대서양의 거대한 섬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현재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조상이 이미 있었다. 그네들은 태양의 광선을 거대한 거울로 반사시켜 큰 파괴력을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처음에는 동물들을 내쫓기 위해서였다. 큰 맹수들로 당시의 사람들은 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짐승들을 정복한 후 얻간은 서로의 전쟁을 위해서도 파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욕망이 늘어나자 대기는 오염되고 모든 사건들이 세계에 가득찼다.

그것이 한계에 이르자 자연을 노하고 화산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 연속 분화와 인



악의 「소트·움·콘셉트·폼즈」가 지구에 대격변을 일으킨다고, 아블레햄센은 예언한다.

공의 파괴력이 함께 되어 1만7천6백년전, 대이변이 일어났다. 대서양의 거대한 섬의 일부는 지금의 설것스해역에 침몰했다」

「그것이 과거의 문명의 종말이었는지요」

「그렇다. 이번은 오래동안—수천년동안 계속되어 세계의 모습은 변했다. 극(極)의 위치는 지금의 북극과 남극이 있는 장소로 옮겨졌다. 인류는 산산히 흩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대한 섬에서 유럽이나 아세아로 옮겨졌다. 흰피부의 사람들은 유럽으로 황색 피부의 사람들은 아세아로 지금의 솔스베리(영국의 남부)와 칼너크(프랑스북부로 배로 달아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전의 습관처럼 돌의 제단(祭壇)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이같은 종류의 많은 리이딩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버지니아주의 「에드가·케이스제단」에 귀중한 문서로서 보관되어 있는데 얼마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사·자료가 되고 긍정과 부정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레포트를 작성했다. 인류학자의 L·W·로빈슨이 쓴 것은 특히 정확하다 했다. 앞에서 말한 리이딩도 로빈슨의 저서인 「로스트·에트란티스」(61년에 번역되었음. 단 절판)를 토대로 다른 자료도 함께 요약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인류학이나 고고학의 정설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만큼 일치하고 있는 점도 있다. 특히 1만년 이전에 격심한 이변이 일어난 사실, 거기에서 달아난 에트란티스인의 일부가 북프랑스나 영국남부에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사실등은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추구해 오던 자들을 놀라게 했다.

몇사람의 과학자나 전설이 과거의 그러한 포울·시프트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읽고 알고 있으니, 또 북프랑스의 칼너크나 영국의 솔스베리에 1만년 이전의 불가사의한 돌의 건조물(칼너크의 열석(列石), 솔스베리의 스톤·헨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니.

더우기 케이스는 이같은 유적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이 고대인이 남긴 대이변을 기억할 수 있게하는 사인이 아닐까하고 소동을 벌인 것도 불과 지금으로부터 2, 30년전의 일들이며 케이스는 자기의 고향부근 이외는 여행한 일도 없으며, 고고학의 책이나 신문조차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다. *

